이젠 VEGAN 시대

가장 가까운 자비 실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귀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이유로 고통 받고 있기에 직접 나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겠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선언이자 탄생게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뭇 중생의 평안을 위해 일평생을 바쳤기에 모두가 손꼽는 성인이 됐다. 5월 27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다.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10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어가는 오늘날. 삼시세끼 우리의 밥상부터 돌아보자. 우리의 한 끼에 어떤 생명이 담겨있는지, 말 못하는 동물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불살생(不殺生)이라는 가장 가까운 자비의 실천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살생이기도 하다. 잊지 말자. 육식을 한다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다. 매순간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다짐이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INSIDE

B3 특집 · 이젠 비건 시대
조계종 CJ 손잡았다

B10 · 11 특집 · 이젠 비건 시대
비건식품 · 음식점 어때요?

B13 기획
생명나눔 걷기명상 대회

B25 특집
스리랑카 불교 성지를 가다